평범한 여성들이 출가한 이유는?

캐나다 공영방송, 비구니 출가 일화 등 소개

박정현 객원기자

"부모님과 남자친구에겐 충격이었을지 모르지만, 나는 단 한 순간도 내 결정을 후회한 적 없다." 올해로 출가한 지 15년째인 비구니 이본 스님의 얘기다. 평범하기 그지없던 20대 여대생이 불교에 발을 디딘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캐나다 공영 방송 CBC가 캐나다의 비구니 연수 기관 'Great Wisdom Buddha Institute'에서 수행 중인 비구니 이본 · 사브리나 · 조아나 · 엘레나 스님 등과 인터뷰를 했다.

이본 스님은 대만에서 태어나 뉴질랜드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다. 성인이 되면서 미국으로 이민, 퍼듀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 그때만 해도 남자친구와 풋풋한 사랑을 하는 여느 여대생과 다름없었다.

"내 꿈은 현모양처이자 성공한 사업가였다"고 밝힌 이본 스님은 출가하는 데 있어 "남자친구와 헤어져야 한다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했다. "관계에 문제가 있어 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힘들었고, 그에게 출가에 대해 입을 뗄 때마다 우리는 함께 울었다"고도 했다.

하지만 15년이 흐른 지금, 이본 스님은 당시 선택에 대해 단연코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본 스님에게는 이성에 대한 욕구보다 더 큰 삶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말한 '가치'는 바로 자신의 인생. 그는 "퍼듀 대학에 다닐 당시 교수님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

이본 · 사브리나 · 조아나 스님
캐나다 비구니 연수기관 수행
'삶의 가치' '타인 위해' 출가해
스님들 "불교에서 답 찾았다"

엇인가' 라고 물었는데 600명의 학생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순간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며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나는 출가했다. 그리고 지금도 탐구한다"고 했다.

출가한 지 13년이 된 사브리나 스님도 마찬가지다.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성장한 그는 LA다저스와 인기 팝 그룹이었던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열성팬이었다. "아주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가족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그다.


왼쪽부터 사브리나 · 조아나 · 이본 · 엘레나 스님. 사진출처=CBC

그러던 사브리나 스님이 출가한 계기는 바로 '타인'이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것은 아니며, 누구나 인생에서 희(喜)와 고(苦)를 함께 겪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에 그는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심리학 전공을 선택했고, 이후 동남아시아 불교국가로 '불교 유학' 길에 올랐다.

남다른 에너지의 소유자이자 치장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던 조아나 스님도 "어린 시절 가장 친한 친구가 심한 우울증을 앓았다. 그를 도울 방법을 고심하면서, 세상에는 그 친구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 속에 허덕인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자신보다 타인의 아픔을 어루만지기 위해 고행을 택한 비구니 스님들. 이들은 인간의 고통과 번뇌를 끊임없이 탐구하는 지금도 부처님 지혜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한다.

"나는 항상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과 같은 행복만 누렸다. 그런데 내가 수행자가 되지 않았다면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나는 불교에서 그 대답을 찾았다."(엘레나 스님)

"달라이라마 후계에 中 개입 말라"

히말라야 불교지도자들
티베트 종교회담서 결의
중국정부 주장 강력 거부


티베트 종교회담에 참석한 불교지도자들과 함께한 달라이라마. 사진출처=달라이라마 공식사무국

달라이라마의 후계를 둘러싸고 중국정부의 주장이 계속해서 언급되는 가운데, 히말라야 지역 불교도들이 중국정부의 주장을 공식적으로 거부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12월 4일 '라디오 프리 아시아(RFA)'는 중국정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결의안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인도 다람살라에서는 '티베트 종교회담'이 개최됐다. 이 회담은 인도 · 네팔 · 라다크를 비롯한 히말라야 문화권과 티베트 불교권의 종교지도자, 지역대표들이 모인 회담으로 올해 제14회를 맞았다.

회담에 참석한 불교지도자들은 "달라이라마의 후계와 계승에 대한 중국의 주도권 주장을 거부한다"는 결의안을 채택, 공식 발표했다. 달라이라마의 후계 주도권이 베이징 중국정부에 있다는 주장은 티베트불교계와 중국정부간의 오랫동안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다.

회담에 참석한 티베트의 고승 간댄 샤르쩨 켄수르 린뽀체는 "히말라야 지역과 달라이라마는 문화적으로나 영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켄수르 린뽀체는 "달라이라마가 히말라야 · 티베트 불교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력은 헤아릴 수 없다. 그만큼 환생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달라이라마의 환생과 후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린뽀체는 PFA 티베트어판 인터뷰에서 "이번 결의안 채택은 히말라야권 불교도들이 달라이라마의 후계권에 대한 중국정부의 월권행위를 정면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27일 개회사를 위해 회담장에 방문한 달라이라마는 결의안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결의안은 "그 어떤 정부도 (후계에 대한) 권위를 가지지 못한다"고 선언하며 "달라이라마의 전통을 이어가길 바라는 티베트인들의 강한 희망에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선택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또한 "만약 중국정부가 정치적인 목적을 이유로 달라이라마의 후계를 선출한다면, 티베트인들은 결코 그 후계자를 인정하거나 존중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티베트 종교회담 측은 결의안의 기본 골자는 유지한 채 세부적인 내용을 다듬어 인도정부의 결의안 지지를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히말라야권 불교문화협회장을 맡고 있는 라마 최펠 쇠빠 린뽀체는 "만약 가능하다면 달라이라마의 환생자가 인도-히말라야 지역에 태어나길 바란다"고 표명했다. 린뽀체는 "이 바람은 중국정부의 간섭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으며, 또 달라이라마에게 신심이 깊은 히말라야 문화권의 사람들의 소망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역대 달라이라마 중 4대 달라이라마와 7대 달라이라마는 각각 몽골과 인도에서 태어났다.

박영빈 객원기자

동부티베트서 13세기 불교 벽화 발견

팔라왕조 양식, 인도-티베트 미술 교류 사료


유적에서 발견된 보살도 벽화의 파편. 사진출처=AFP통신

동부티베트의 산속에서 귀중한 불교미술품이 발견됐다. 12월 4일 중국의 '신화통신'과 'AFP 뉴스' 등은 800년 가까이 잠들어 있던 고대의 불교 벽화를 특별 보도했다.

벽화가 발견된 곳은 메콩강의 상류인 난창강(瀾滄江) 수원지구가 소재한, 암도 지역 율쑬주(現 칭하이성 위쑤 장족자지주) 낭첸현 사원유적이다. 유적은 지난 6월경 같은 현의 싸르다 지구의 다창 마을에서 도로개설을 위한 공사 중 계곡에서 발견됐다.

발견당시 유적은 5개의 석벽이 서있는 건물의 유구가 남아있었고, 이 중 내벽의 3곳에서 벽화가 발견됐다. 벽화는 내벽에 바른 흙 위에 프레스코화 기법으로 그려졌으며 전체적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전했다.

유적의 조사를 실시한 베이징 고궁박물원 티베트불교 문물연구소의 뤄원화 소장은 "벽화의 화풍은 8세기 후반에서 12세기 후반까지 동북 인도를 지배한 팔라왕조의 미술양식을 따르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팔라왕조의 영향이 뚜렷이 보이지만, 그림 아래에 남은 티베트어 화제 등으로 보아 13세기경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했다. 뤄 소장은 "연대적으로는 해당지역에서 발견된 벽화 중 가장 오래된 벽화일 가능성이 높다"고 첨언했다.

이번 벽화의 발견은 기존에 팔라왕조의 불교미술이 티베트불교와 중국에 영향을 미쳤던 11~13세기 불교미술연구의 주요한 사료가 될 전망이다. 낭첸현 문화관광국은 "사료가 적은 고대 불교 벽화가 발견됨에 따라 암도 지역 선주민들의 문화적 활동을 이해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내비쳤다.

박영빈 객원기자

호류지 새해맞이 '불상청소'

1994년 세계문화유산 지정 이후 매년 봉행


불상에 1년간 쌓인 먼지를 터는 스님들. 사진출처=산케이신문

세계문화유산 일본 천년고찰 호류지(法隆寺)에서 특별한 행사가 봉행됐다. 매년 새해를 맞이하기 전 법당의 불상을 청소하는 '오미 누구이(お身拭い)' 법요다. 12월 9일 일본 '아사히신문' '산케이신문' '닛폰 텔레비전' 등 주요 언론들은 호류지의 오미 누구이를 보도했다.

'오미 누구이'란 우리말로 몸을 닦아낸다는 뜻이다. 불상에 쌓인 먼지나 때를 털고 닦는 이 행사는 일본의 여러 고찰에서 연례행사로 전해온다. 일반적으로 유명한 오미 누구이는 나라 토다이지(東大寺)의 대불을 청소하는 오미 누구이다. 호류지는 사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다음 해인 1994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12월 중에 봉행하고 있다.

12월 9일 오전 10시, 호류지의 대중스님들이 오미 누구이를 위해 사찰의 중심전각인 금당에 모였다. 먼저 호류지를 대표하는 오노 켄묘 관장스님을 법주로 발견식(撥遣式)이 봉행됐다. 청소 중에 신앙의 대상인 불상을 대한 악업을 피하기 위해서, 점안의 반대인 발견의식을 통해 불상을 보통의 조각상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관장스님을 비롯해 9인의 스님들이 독경을 이어가는 가운데 청소가 시작됐다.

길이 3m 가량의 대나무 장대 끝에 부드러운 일본지를 붙여 만든 먼지떨이와 작은 붓 등을 사용해 1년간의 먼지를 공들여 털어냈다. 청소가 끝난 후에는 다시 점안식을 거쳐 여법한 불상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날 오미 누구이는 금당의 본존불을 비롯해 호류지 내의 국보급 불상들이 모셔진 법당에서도 동일하게 진행됐다.

호류지 측은 "호류지의 오미 누구이는 새해준비의 첫 시작"이라며 본격적으로 새해를 맞이할 준비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멀리 도쿄근교에서 관광차 왔다가 오미 누구이를 보았다는 한 회사원은 "스님들이 정중하게 불상의 먼지를 털어내는 모습을 보니 절로 몸이 시원해지는 듯하다"고 감상을 밝혔다.

박영빈 객원기자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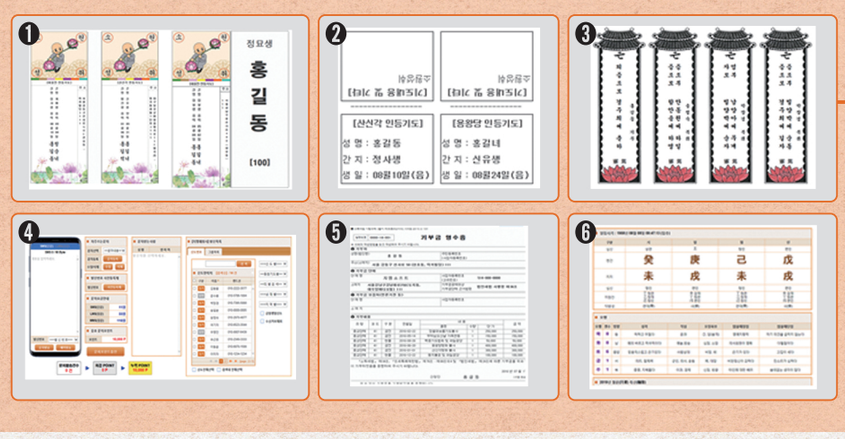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GmSoft GM SOFT since 2015 사찰신도 관리 프로그램

동종업계 최저가격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기본 19,800원 | 설치비 · 세팅비 전액무료



프로그램 주요 기능
❶ 연등표 출력
❷ 인등표 출력
❸ 위패출력
❹ 문자발송
❺ 기부금 영수증
❻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지엠소프트 [지엠소프트]를 검색하세요
대표전화 070-7633-2525, 010-8588-2525
상담문의 평일 09:30 ~ 17: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www.gmst.co.kr